

마태복음 26장 57-68절 말씀

장소, 상황

-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
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
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
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
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

심문①

-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
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
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

심문②

-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이르되
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
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
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
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

심문③

- 대제사장이 이르되
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
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
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
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
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
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

판결, 폭행

-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
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
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
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
대답하여 이르되
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
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
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이르되
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